

선율 타고 불어오는 봄기운 느껴볼까

살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봄기운이 제법 따사해졌다. 한결 화사해진 햇살과 함께 여행에 마음을 적시는 멋진 선율의 음악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음악과 함께 떠나는 여행도 낭만적이지만, 음악 그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되는 여행도 봄날에 떠나볼 만한 여정이다. 그래서일까.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3월의 추천 가 볼 만한 곳의 테마가 바로 ‘음악이 있는 여행’이다.

●남해 봄바다와 클래식 선율

올해로 21회를 맞은 2023통영국제음악제가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린다.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제다. 통영국제음악당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해 조망이 훌륭하다. 콘서트홀 로비는 공연이 없는 날에도 개방한다. 윤이상의 삶과 음악을 살펴보고픈 윤이상기념관을 방문하면 된다. 가까운 서포라공원에서 가장 높은 서포루에 오르면 강구안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오늘은 나도 K-팝 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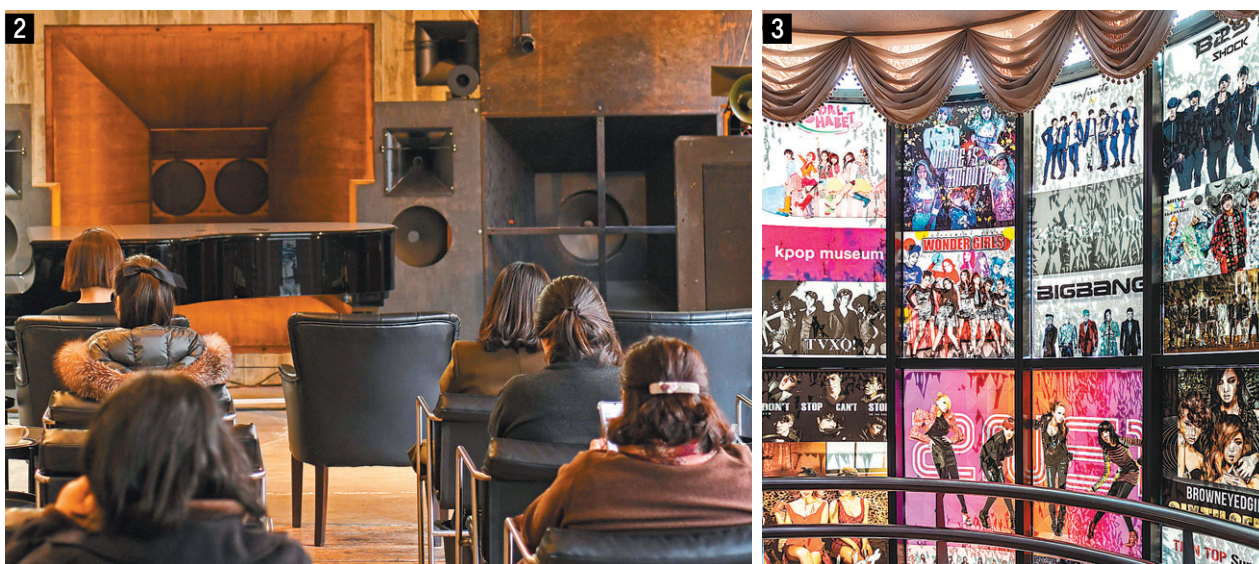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 청계전 서울센터에 들어선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그라운드에는 K-팝 팬들에게는 요즘 떠오르는 명소다. 5개 층에 걸쳐 K-팝, 드라마, 아트, 축제 등 다양한 한국 관광 콘텐츠를 즐기고 체험하도록 기획했다. 특히 2층 케이팝그라운드는 뮤직비디오 무대 장치 같은 공간에서 K-팝을 듣고, 춤추고, 사진이나 영상도 촬영할 수 있어 인기가.

●대구로 떠나는 추억의 음악 여행

대구 중구 방천시장 옆에는 가수 김광석을 기리는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이 있다. 그의 노랫말과 벽화, 다양한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김광석스토리하우스에서는 학창 시절 사진과 콘서트 영상, 음반을 전시하고 있다. 동성로에는 1957년 문을 연 하이마트음악감상실이 있다. 3대를 이어온 클래식 감상실로 대형 부조와 빛바랜 LP반, 옛 오디오, 신창곡을 적던 낡은 첼판이 연륜을 뽐낸다. 향촌동에도 1946년 우리나라 최초로 문을 연 고전음악 감상실 녹향이 있다. 인근 진골목에는 올드 팝이 흐르는 미도다방도 있다.

●고도 경주서 마주한 한국대중음악의 자취

경주 보문관광단지에는 한국 대중음악 100년 역사가 한자리에 모인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이 있다. 2층은 한국 대중음악사를 시대별로 보여주고, 3층에서는 소리 예술 과학 100년 역사를 전시한다. 세계적으로 희



1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의 입구. 노래하는 김광석의 조형물이 눈에 띈다. 2 클래식 공연장처럼 좌석배치를 한 것이 인상적인 황인용뮤직스페이스카페라타 실내. 거대한 빈티지 스피커가 인상적이다. 3 한국대중음악박물관 2층 전시 공간에서는 한국 대중음악 100년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귀한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듣고 싶은 곡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 1층에는 카페 랩소디인블루와 음악감상실이 있다.

●클래식 감상의 성지순례

파주 황인용뮤직스페이스카페라타와 풍치노코크리트는 클래식 팬이라면 무척 귀에 익은 곳이다. 대표적인 음악 감상 전용 공간으로 공간의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두 곳 모두 국내서 접하기 쉽지 않은 귀한 빈티지 오디오 시스템을 자랑한다. 1920~1930년대를 풍미한 미국 웨스턴일렉트릭과 독일 클랑필름의 극장용 대형

스피커로 클래식을 즐기는 재미가 있다.

●지금은 트로트 전성시대

영암 월출산기찬랜드에 있는 한국트로트가요센터는 대중음악 대표 장르인 트로트를 테마로 한 전시관이다. 1층에는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트로트의 역사를 시대별로 전시한다. 옛날 음악다방처럼 꾸민 공간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감상하거나 애창곡을 부를 수 있다. 2층은 영암 출신 가수 하춘화를 기념해 무대 의상과 신발, 각종 시상식에서 받은 트로피 등을 전시하고 있다.

oldfield@donga.com



제주신화월드의 연간 바우처 ‘신화플러스’

제주신화월드는, 역대급 가성비 ‘신화플러스’ 론칭

제주신화월드는 온라인 연간 바우처 ‘신화플러스’를 2일 론칭했다. 제주여행 마니아와 알뜰 소비의 ‘체리슈머’를 겨냥한 맞춤형 상품이다. 최대 60% 할인하는 바우처와 객실 40%, 직영식음업장 20%를 포함한 할인을 제공한다. e-카드와 e-바우처로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4월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2일부터 한 달 간 리조트 대표번호를 통해 구매하면 유효기간을 13개월로 연장하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서울은 2023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 행사의 만찬 메뉴를 포함한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패키지를 선보인다.

롯데호텔 서울, ‘다보스 만찬’ 포함 패키지 선보

롯데호텔 서울은 ‘2023 다보스 코리아 나이트’ 행사의 만찬 메뉴를 특전으로 포함한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패키지를 진행한다. 패키지는 메인타워 주니어 스위트 더블 1박, 클럽라운지 2인, 무궁화 다보스 포럼 런치 기념코스 2인 등으로 구성됐다. 투숙기간은 31일까지다. 런치 기념코스는 식전 먹거리와 해물 잿집 무침, 밀밭, 수삼 타락죽, 갈비찜, 비빔밥과 된장국 등의 메뉴로 준비했다. 이그제큐티브 프리미어 더블 또는 트윈 1박, 르 살롱 2인, 무궁화 다보스 포럼 디너 기념코스 2인 패키지도 있다.

파라다이스그룹, 새 홍보 모델로 박서준 발탁



박서준

파라다이스그룹은 배우 박서준을 새 홍보 모델로 선정했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새 모델 발표에 앞서 2월 파라다이스시티 국내외 SNS 채널을 통한 사전 티징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박서준의 목소리로 예술작품에 대해 들려주는 ‘오디오 아트 도슨트’ 콘텐츠를 1일 공개했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앞으로 박서준을 영종도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와 서울, 인천, 부산, 제주에서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 카지노 등 브랜드 모델로 기용한다. 20일에는 박서준이 출연하는 첫 광고 캠페인을 공개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숲 속에서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마음건강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프로그램인 ‘비타민 캠프’를 3월 시즌 오픈한다. ‘비타민 캠프’는 에버랜드가 2014년 개발한 국내 첫 감정 관리 전문 과정이다. 에버랜드는 1994년 근무자들의 고객 응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험혁신아카데미를 설립해 핸드롤링과 같은 에버랜드만의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협력해 2014년 ‘비타민 캠프’를 개설했다. 이후 지금까지 금융, 호텔, 공공기관, 지자체 콜센터, 사회복지단체 등으로 참가자가 확대돼 8000여

“마음 치유하러 오세요”

에버랜드 ‘비타민 캠프’ 3월 시즌 오픈

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에버랜드는 올해 ‘비타민 캠프’ 운영 10년을 맞아 서비스직군 중심에서 모든 직장인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자연 체험을 더욱 강화하고자 에버랜드의 생태숲 포레스트 캠프에 관련 돔 시설을 새로 설치했다. 편백나무

와 통유리가 어우러진 특수 시설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새, 바람, 물소리 등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 넓이 200여㎡, 최대 높이 9.5m로 30여 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다.

비타민 캠프를 담당하는 경험혁신아카데미 이유리 그룹장(심리학 박사)은 “많은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현대 사회에서 감정은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익혀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며 “비타민 캠프 참가자의 상황, 성향에 맞춰 더욱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3일 (금) 음력: 2월 1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웬지 마음이 쓸쓸한 날이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급진적, 정신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이므로 안정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자세가 요망 된다. 꿈과 이상이 현실화되기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오늘은 망신살이며 식상일이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치밀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은 돼지띠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고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자칫 망언이나 희롱이 될 수 있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았으니 견디면 나아질 것이다. 신중하고 침착한 행동은 의외의 횡재수를 가져온다.	이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사로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급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늘은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 간에도 지금까지의 자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 하겠다. 오늘은 장성이 망신을 만난 날이다. 하지만 실속은 있는 날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 및 서류로 인한 주위의 반박과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 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쉽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자신만 보이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3일(금)			
서울	0/10	인천	0/0	춘천	0/20	강릉	0/0
	-1 11		1 9		-6 12		3 17
대전	0/10	전주	0/20	광주	0/20	대구	0/10
	-3 13		-3 13		-2 13		-2 16
부산	0/20	창원	0/20	제주	1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 13		-1 13		3 11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4023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양형호	사진부장 고충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